

### 감수성의 혁명

구병모, 『네 이웃의 식탁』(민음사, 2018)

박민정, 『미스 플라이트』(민음사, 2018)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재현한 작품들을 기억한다. 조지프 콘래드가 『암흑의 핵심』을 쓰지 않았더라도 야만성과 폭력성, 그 힘에 끌리는 제국주의의 정치적 무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켄 키지가 『뼈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교도소보다 더 잔혹한 정신 병원을 통해 감시와 처벌, 규율과 통제의 폭력을 재현하지 않았다면 통제당하는 현대인의 고통은 얼마간 더 암흑 상태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과 『1984』를 쓰고 마거릿 애트우드도 『시녀 이야기』를 쓰면서, 한 시대에 통용되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변화를 맞았다. 그들 작품과 함께 사회는 고통의 언어를 가진 예민한 존재가 되어갔다. 오직 이들로 인해 어둠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들로 인해 어둠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랫동안 알려질 수 있었다.

문학의 역사는 폭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폭력의 개념과 범주는 유동적이다. 어제의 상식은 오늘의 폭력이 되고 오늘의 예의는 내일의 무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력이 이토록 유동적인 것은 그것이 가해가 아니라 피해의 자리에서 볼 때 비로소 실체와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피해의 자리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자리가 없

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부르지 못하는 폭력은 아직 폭력이 아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학은 그 기준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읽어내는 촉수다. 문학이 권력일 수 있다면 그 권력은 언어를 통해 어제의 상식을 오늘의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온다. 이름 없는 폭력을 부를 수 있게 만들 때만 문학은 힘을 가진다. 문학의 역사는 무엇보다 폭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인 것이다.

현대의 폭력은 죽이지 않고 죽게 만든다. 폭력의 양식은 점점 더 은밀하고 복잡하게, 구조적이고 집단적으로 행사된다. 폭력의 양식이 복잡해지고 집단화될수록 문학의 양식 또한 섬세해지고 개별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변화겠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폭력’은 이제 문학의 최대 화두다. 폭력의 기준선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의 기준선도 급격히 요동친다. ‘오늘의 폭력’ 앞에 떨고 있는 개인의 불안과 공포를 감지할 수 있는가, 감지한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문학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다. 느린 것은 문학이 아니다. 아직 이름 없는 폭력에 희생당한 개인에게 문학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존의 정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것을 두고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2018년을 돌아본다. 많은 소설이 감수성 혁명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젠더 영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다. 일상적으로, 섬세하게, 피해의 시선에서 폭력의 기준을 재설정한 그들 작품으로 인해 감수성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자리한 두 권의 소설이 유독 눈에 띈다. 구병모의 『네 이웃의 식탁』과 박민정의 『미스 플라이트』다. 두 편의 장편소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우

산 아래 있지만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르다. 『네 이웃의 식탁』은 파괴하는 구조에 따라 진행되는 소설인 반면 『미스 플라이트』는 복원하는 구조에 따라 진행되는 소설이다. 따라서 이 두 권을 함께 읽는 일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재현하는 구조가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이웃의 식탁』은 ‘꿈미래실험공동주택’(이하 실험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꿈과 미래가 파괴되는 이야기다. 이 주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젊은 부부를 위해 나라에서 지은, 편의 시설 하나 없는 고즈넉한 산속에 세워진 열두 세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다. “나라에서 신경 써서 지은 새 집이라 깨끗하고 구조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며 무엇보다 공공 임대라는 장점”(p. 18)이 있지만 그만큼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갖추어야 할 20여 종의 서류 항목 가운데에는 자필 서약서까지 있는데, 약속의 내용이란 한마디로 다둥이의 부모가 되겠다는 맹세에 다름 아니다. 이곳에 들어갈 유자녀 부부는 자녀를 최소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한다는 것. 입주 신청서를 낼 자격 조건은 이미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만 42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지닌 이성 부부에 한정된다는 것. 기존에 자녀를 2인 이상 둔 부부, 더불어 둘 중 한 사람만 직장에 다니는 부부는 우대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 요컨대 입주자들이여, 출산을 위해 복무하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실험공동주택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거주자가 없거나,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 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그 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재미있어하거나 완성된 집이 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바람에 흔들려 부서지는 걸 보며 즐거워할 누군가를 위해서다. 한마디로 놀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실험공동주택 역시 누군가의 놀이가 아니었을까.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국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데 궁극의 목적이 있는 집. 집은 누군가의 목적에 복무하되, 그 누군가가 결코 거주자들이 아님은 확실하다. 소설은 16인용 식탁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이 거대한 식탁이 언제 어떤 경위로 주택의 공동 마당에 자리 잡았는지는 묘연하다. 아마도 주택 설계자를 비롯해, 실험공동주택의 존재에 관여한 사람의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어른 열여섯 명이 앉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까지 더하면 스무 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는 이 식탁의 위용은 실험공동주택을 받치고 있는 ‘식탁 중심주의’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에 사람들을 삶을 맞춰가는 곳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서의 공동체 마을과 실험공동주택은 이 지점에서 선명하게 구분된다.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이유는 스스로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질서를 통해 자신들에게 맞는 최적의 삶을 이루는 데 있다. 반면 실험공동주택은 입주 전부터 시작해 입주 내내 제출해야 할 것들, 증명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로 가득한 규율의 공간이다. 공동체 마을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실험공동주택은 국가의 행복을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수단화된 공동체는 쉽게 폭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공동주택에는 네 커플이 입주해 있다. 신재강과 홍단희, 고여산과 강교원, 손상낙과 조효내, 서요진과 전은오가 그들이다.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 이

유와 정책적 이유로, 즉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첨된 이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는 수평적 질서에 억지로 맞춰져 있다. 공동체는 질서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이 폭력적인 질서가 얼마나 무용하고 무능하며 기만적인지는 서요진과 신재강 에피소드를 통해 폭로된다. 집이 산속에 위치한 탓에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강의 차가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요진의 차로 두 사람은 출퇴근을 함께하게 된다. 이때 재강이 요진에게 가하는 플러팅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가해지는 추행, 즉 폭력이다.

요진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허위를 폭로한다. 요진은 자신이 예민한 여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못지않게 자신으로 인해(사실은 재강으로 인한 것임에도) 입주자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두렵다. 요진의 문제 제기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이 공동체에서 목적의 영속성을 해치는 불씨가 될 게 뻔하다.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이 공동체는 솔직히 폭력에 무관심하다. 재강과의 사건에서 곤란과 공포를 느낀 요진이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남편 은오와 교원이 친밀하게 앉아 대화하는 식탁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소설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16인용 식탁은 분노와 두려움에 치를 떠는 요진 앞에 무관심한 얼굴을 하고 재등장한다. ‘식탁 중심주의’는 거기 앉는 사람들의 사정에 관심이 없다. 이 소름끼치는 무관심이야말로 실험공동주택의 진짜 표정이다. 요진이 당하는 개별적 폭력과 실험공동주택이 가하는 구조적 폭력이 교차하는 자리엔 공허한 이름들만 남는다. 이름 붙일 수 없는 폭력이 재현되는 『네 이웃의 식탁』은 공동체에 붙어 있는 “기묘한 악취”를 드러낸다.

‘왜’가 아니라 ‘누구’

『네 이웃의 식탁』이 파괴의 이야기라면 『미스 플라이트』는 파괴 이후, 복원에 대한 이야기다. 온몸에 스캔들을 묻힌 채 스러진 젊은 여성, 유나의 연대기를 따라가기 전에 비행기라는 독특하고 절묘하며 영리한 공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늘에 비행기가 있고 땅에 군대가 있다. 유나가 속해 있는 비행기는 중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다. 반면 유나의 아버지 성근이 속해 있는 기무사는 중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군대가 힘의, 힘에 의한, 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두 곳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만 폭력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세계로 대표되는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동안 발버둥 친 유나는 폭력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간 걸까. 소설은 유나의 죽음과 함께 시작한다. 아무리 멀리까지 가 봐야 결국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두 공간의 교차는 어쩔지 절망적이다. 그러나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이 소설은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유나를 판단하는 일에 관심 없는 작가는 유나의 죽음이 없는 자리에서 유나를 보여준다.

이반 자블론카의 『레티시아』는 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여성 레티시아의 삶을 추적해가는 이야기다. 그런데 추적하는 방식이 여느 시점과 다르다. 그의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나 그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면서 생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때문이다. 이 책이 질문하는 것은 한 가지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왜 죽음의 시점에만 매달리는가. 대답은 뻔하다. 죽음의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음의 이유를 좇은 결과 분명해

지는 것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 그 외의 모든 조건은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거나 그마저도 알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쉽게 오해된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의 삶이 죽음의 시점을 기준으로 단일하고 평면적인 그것으로 납작해진다. 왜 죽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놓치는 것들 중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누가 죽었는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것이 누구의 죽음이든 간에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죽음을 소비한다는 건 피해자를 지우는 가장 전형적이고 비열한 가해의 논리가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피해자를 한 번 더 죽이는 폭력이다. 『미스 플라이트』는 한 여성의 죽음을 스캔들의 프레임으로 소비하려 드는 태도에 강력히 반하는 구조를 취한다.

아내와 이혼한 뒤 딸과 소원하게 살아온 성근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다. 딸과 절친한 친구였다는 이들로부터 유나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둥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둥 전모를 알 수 없는, 하지만 확실히 느낌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친구들이 말하는 바는 한 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성근은 유나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결론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찾아 나선다. 요컨대 ‘왜’에 집중한다. 성근의 이야기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 성근의 진전되지 않는 추적과 동시에 진행되는 이야기는 유나 측근의 시점으로 재현되는 유나 자체, 즉 ‘누구’에 집중된다. 이를테면 유나와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들 눈에는 불륜 관계처럼 보이기도 했던 부기장 영훈은 성근의 기무사 후배인 동시에 성근으로부터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한 사람으로, 과거에 성근의 집안일을 도와주며 유나와 친하게 지냈다. 영훈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유나는 유년 시절의 유나다. 부하를 사적으로 부리며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 부부에게 어린 유나는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 한편 대학 시절 친구들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유나는 리더십 있고 친화력 높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친구들과 함께한 국토 대장정 에피소드는 아버지 눈에 약골이었고 남들 눈에 부잣집 외동딸의 전형으로만 비쳐지던 유나의 다른 면면을 보여준다. ‘왜’의 세계와 ‘누구’의 세계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미스 플라이트』는 불가능을 추구한다. 오명을 뒤집어쓴 여인의 미스터리한 죽음의 배후를 그녀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로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나의 삶을 복원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죽음을 말하는 방식과 배치된다. 유나가 죽었다. 이 말에 따르는 클리셰는 진부하다. 그녀는 자살했을 것이다, 그녀는 부기장과 불륜 관계였을 것이다, 그 사실이 알려져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했을 것이다 등등. 스캔들은 유나가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나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로 하여금 수치심에 간혀 움짱달짝 못 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작가는 흔히 대중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피해가며 유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엮어낸다. 유나의 죽음에 드리운 비극성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그의 환했던 삶을 드러낸다. 삶의 빛이 죽음의 그림자를 덮는다. 성근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신경이라고는 없는 유나에게 승무원이란 직업은 의외의 결과지만 성근이 없는 곳에서 유나의 인생은 차곡차곡 승무원에게 필요한 체력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토록 까마득한 시차가 ‘왜’의 세계와 ‘누구’의 세계를 만나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는 또한 죽음으로 삶을 대체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병모에게 실험공동주택은 출산을 제고를 위한 국가적 의식을 붕괴시키는 전략적 장소로 선택되었다. 만들어진 공동체는 이웃집

여성을 향한 이웃집 남성의 플러팅으로 금이 간다. 실험공동주택은 근사한 말 뒤에 천박한 욕망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실험공동주택의 주체는 국가다. 개인의 꿈과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꿈과 미래다. 그러니 개인의 실질적 문제 앞에서 공동주택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 자체를 직면할 능력 또한 없다. 『네 이웃의 식탁』은 포장된 국가의 욕망, 그리고 거기 내재된 폭력을 폭로한다. 만들어진 공동체의 만들어진 욕망 아래 개인의 내면은 혼란스럽게 부서져간다. 그런가 하면 박민정에게 유나의 연대기는 대중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훼손된 어느 인생을 복원시키는 전략적 시간으로 선택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이야기 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의 삶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복원된 유나의 삶은 우리가 타인의 죽음 앞에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문한다. 박민정은 우리에게 죽음의 소비자가 될 것인지 묻는다. 이 질문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의 폭력은 죽이지 않고 죽게 만든다. 폭력은 실험공동주택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구병모와 박민정의 소설은 폭력의 가면을 벗긴다. 이 진실을 우리는 무겁게 마주해야 한다.

박혜진

문학평론가.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없는 얼굴로 돌아보라: 김업지 소설에 나타난 장막의 글쓰기」가 당선되어 등단.